

『남계연담』 이본 연구*

楊攀**

<차례>

1. 서론
2. 대교법(對校法)으로 검토
3. 본교법(本校法)으로 검토
4. 타교법(他校法)으로 검토
5. 이교법(理校法)으로 검토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대교법(對校法), 본교법(本校法), 타교법(他校法), 이교법(理校法) 등 교감학 연구 방법으로 현존하는 『남계연담』의 모든 이본, 곧 김광순본, 장서각본, 서울대본을 비교하여 각 이본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남계연담』은 창작 당시에 다양한 중국 자료를 참고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여 번역하였다. 이들 자료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황명조훈(皇明祖訓)』을 비롯한 국가 정부에서 편찬한 자료이다. 둘째는 『대명영렬전(大明英烈傳)』을 비롯한 중국 고전 소설이다. 셋째는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야사나 설화 같은 자료이다. 김광순본은 서사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더해 주었지만,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자구 출입을 통해 김광순본의 내용을 수시로 생략하였다. 이렇게 생략해도 서사 전개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김광순본보다 내용의 완전성이 확실히 떨어진다. 이점에도 김광순본은 현재까지 두 권 밖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작품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비록 누락한 내용이 있는 서울대본이지만, 현존 이본 중

* 이 논문은 2020년도 廣東省哲學社會科學規劃項目 연구 프로젝트 ‘朝鮮《金華寺夢遊錄》作品群中的中國歷史人物形象研究’(GD20XWW05)의 단계적 연구성과물로 廣東省哲學社會科學規劃項目 연구비에 의한 것임.

** 中山大學 國際翻譯學院 博士後 研究員

에서 유일하게 세 권이며 5회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본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남계연담, 이본, 대명영렬전, 주원장, 장서각

1. 서론

『남계연담』은 작가와 창작 시기 미상의 한국 고전소설이다. 명나라 홍무(洪武) 3년부터 31년까지, 건국 초기 20여 년 동안 명태조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현재까지 이 작품의 이본은 세 개만 발견되었고¹⁾, 모두 한글 필사본이다. 즉,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3권 3책 완질의 ‘남계연담(南溪謙談)’²⁾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3권 2책 낙질된 ‘남계연담(南溪演談)’³⁾, 그리고 김광순(金光淳) 개인이 소장한 2권 2책 완질의 ‘남계연담(南溪聯譚)’⁴⁾이다. 영조가 이 작품을 즐겨 읽었다는 기록은 종종 남아 있으나⁵⁾ 이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광범위하게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양승민은 『승정원일기』 내용 중 소설에 관한 기록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
- 1) 조희웅에 따르면, 이해정보도 있지만(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113쪽), 홍현성은 이를 곧 서울대본으로 보았다(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학』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9쪽).
 -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개인문고) 일석 819.5 N152yp. 이하 편의상 ‘서울대본’으로 지칭하고, 이 자료의 원문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제시하겠다.
 -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 K4-6788. 이하 편의상 ‘장서각본’으로 지칭하고, 이 자료의 원문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제시하겠다.
 - 4) 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 42, 박이정, 1998, 337~528쪽. 이하 편의상 ‘김광순본’으로 지칭하고, 이 자료의 원문을 인용할 때 페이지 수만 제시하겠다.
 - 5)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80~284쪽.

원전(原典)이 일실된 중국 소설의 번역본으로 보았다.⁶⁾ 더구나 전인초는 유기(劉基)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의 현실성과 허구성을 살펴 보았다.⁷⁾ 한편 홍현성은 서울대본이 원래 장서각본과 함께 낙산재에 소장된 것이고, 두 이본이 같은 계열의 저본을 필사했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묶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⁸⁾ 이 외에 해제 수준에 불과한 단편적인 언급도 있다.⁹⁾ 이상의 연구는 『남계연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현존 이본에 대한 자세한 비교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교감학의 연구 방법¹⁰⁾으로 현존 이본에 대하여 면밀히 비교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대교법(對校法)으로 검토

우선 대교법(對校法)¹¹⁾으로 현존 이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각 이본

6) 양승민, 위의 논문.

7) 전인초, 「유기행장과 『남계연담(南溪聯譚)』, 『남계연담(南溪演談)』,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30~338쪽.

8) 홍현성(2011), 앞의 논문, 9~14쪽.

9) 정병설, 「24. 남계연담, 『장서각 고소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67쪽;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7, 28쪽;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28쪽.

10) 교감학 연구 방법은 현대 학자들에 의하여 재정리되어 대교법(對校法), 본교법(本校法), 타교법(他校法), 이교법(理校法) 등과 같은 네 가지 연구 방법으로 확정되었다. 정천범(程千帆)·서유부(徐有富), 『교수광의(校讎廣義): 교감편(校勘編)』, 제노서사(齊魯書社), 1998, 288~345쪽. 황영년(黃永年), 『고적정리개론(古籍整理概論)』, 상해서점출판사(上海書店出版社), 2001, 64~90쪽. 전현(錢玄), 『교감학(校勘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2019, 135~185쪽.

11) 대교법(對校法)은 교감학(校勘學)의 제일 기본적인 연구 방법으로, 다른 이본을 서로

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 이본의 전체 권질을 대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남계연담』 이본 권질 대교 결과]

회수	김광순본	장서각본	서울대본
제1회	337~371쪽	낙질	【1-1a】~【1-16b】
제2회	372~409쪽	낙질	【1-16b】~【1-37b】
제3회	410~426쪽	낙질	【1-37b】~【1-49a】
	426~523쪽	【2-1a】~【2-63a】	【1-49a】~【2-33b】
	없음	【3-1a】~【3-20b】	【2-33b】~【3-8b】
제4회	없음	【3-20b】~【3-56a】	【3-8b】~【3-34b】
제5회	없음	【3-56a】~【3-68b】	【3-34b】~【3-43b】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김광순본은 두 권만 전해지고, 그 내용이 장서각본의 낙질된 제1권과 현존하는 제2권에 해당한다. 권질의 일치성을 보면 김광순본이 서울대본보다 분명히 장서각본과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본만 현존 이본 중에서 유일하게 세 권이며 5회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세 이본이 공유하는 내용은 『남계연담』 제3회의 일부이고, 곧 장서각본의 제2권이다. 다음으로 대교법을 통해 세 이본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탈문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 두 이본의 탈문은 기계적으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삭제해도 문맥이 통하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김광순본과 대교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의 탈문은 주로 세부 묘사와 나열된 정보에 대한 생략이다. 이외에 중복된 정보에 대한 탈문도 있다. 우선 세부 묘사에 대한 탈문의 예를 들어보겠다.

대조하면서 교정(校正)하는 방법이다. 전현(錢玄)(2019), 앞의 책, 135쪽.

태조(太祖)는 갈분차(葛粉茶)로 신선불취단(神仙不醉丹)을 타 잡스오시니, 정신(精神)이 조금도 미란(迷亂)치 아니시되 제공(諸公)은 다 취(醉)하야 이러 움직이지 못하니, 잇씨 님의 황혼(黃昏)이 되엇는지라.

김광순본¹²⁾

태조(太祖)는 갈분차(葛粉茶)의 신선불취단(神仙不醉丹)을 타 진어(進御)하시니, 정신(精神)이 조금도 난(亂)티 아니신디라.

장서각본¹³⁾

태조(太祖)는 갈분차(葛粉茶)에 신선불취단(神仙不醉丹)을 타 잡스오니, 정신(精神)이 조금도 난(亂)티 아니신디라.

서울대본¹⁴⁾

명태조는 공신들의 취중 행동을 통해 그들의 충성심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고 연회를 베풀어 공신들에게 술을 많이 권했다. 명태조는 취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갈분차에 ‘신선불취단’을 타서 먹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김광순본은 공신들이 만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황혼까지 술을 마신 것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공신에 대한 묘사를 모두 생략하였다.

이렇게 생략해도 서사의 발전에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으나 김광순본보다 내용의 완전성이 확실히 떨어진다. 김광순본이 명태조가 취하지 않은 모습과 공신들이 취한 모습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명태조의 지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뒤에서는 서달(徐達)의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복선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이런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인물

12) 김광순본 467쪽. 한자병기는 필자가 표기한다. 이하 같다.

13) 장서각본 권2, 27b면.

14) 서울대본 권2, 9b면.

형상을 부각하는 면에 있어서 김광순본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예는 명태조가 촉(蜀)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무신들을 전별하는 장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上)이 강두(江頭)의 나와 전송(錢送) 하시니 정기폐일(旌旗蔽日)하고
검극(劍戟)이 삼열(森列)하여 칙등(輜重)이 천이(里)(千里)에 빗겨더라.
김광순본¹⁵⁾

상(上)이 나아와 강도의 전송(錢送) 하시니 정기폐일(旌旗蔽日)하고 칙등(輜重)이 천니(千里)의 쫓디 아녓더라.
장서각본¹⁶⁾

나아와 강도에 전송(錢送) 하시니 정기폐일(旌旗蔽日)하고 칙등(輜重)이 천리(千里)에 굶티디 아녓더라.
서울대본¹⁷⁾

이상의 내용은 장수들이 경성을 떠날 때 명태조가 강가까지 나와서 전송하는 장면이다. 전송의 장소를 소개할 때 서울대본과 장서각본의 ‘강도’는 말이 통하지 않고, 김광순본을 따라 ‘강두(江頭)’로 봐야 한다. 그리고 장수들의 군대를 묘사할 때 김광순본은 연이어 ‘정기폐일(旌旗蔽日)’과 ‘검극삼열(劍戟森列)’이라는 사자성어 두 개를 사용하였다. 이런 묘사는 고전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상투적인 구절이다. 그러나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모두 ‘검극삼열’이라는 말을 생략하였다. ‘정기폐일’이라고만 해도 군대의 규모와 기세를 표현할 수 있으나 역시 ‘검극삼열’과 함께 사용해야 구절이 서로

15) 김광순본 509~510쪽.

16) 장서각본 권2, 55a면.

17) 서울대본 권2, 28b면.

대구가 되어 문장이 더 유려하게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예로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일부 묘사를 생략하더라도 문장이 통하도록 고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열된 정보에 대한 생략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에 위의 명태조가 공신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의 일부를 선택하여 살펴보겠다.

태조(太祖) 소환(小宦)을 명(命)하야 모든 공신(功臣)을 붓드러 궐중(闕中) 각전(各殿)의 쉬게 하시니, 조국공(曹國公)은 문화각(文華閣)으로 가고, 송국공(宋國公)은 어조정(魚釣亭)으로 가고, 영국공(潁國公)은 파향정(波香亭)으로 가고, 신국공(信國公)은 관무정(觀霧亭)으로 가고, 위국공(魏國公)은 구례내(舊內)로 가니, 이 구례내(舊內)는 상황(皇)이 오왕(吳王)으로 계오신 적 거처(居處)하시던 침실(寢室)이라.

김광순본¹⁸⁾

상(上)이 여러 쇼환(小宦)을 불러 궐중(闕中) 각전(各殿)의 붓드러 가 자게 하라 하시니, 조국공(曹國公)은 문화각(文華閣)으로 가고, 송국공(宋國公)은 어도당(魚釣亭)으로 가고, 위국공(魏國公)은 구내(舊內)로 가니, 이 구내(舊內)는 황상(皇)이 오왕(吳王)으로 겨신 적 처(處)하시던 침전(寢殿)이라.

장서각본¹⁹⁾

상(上)이 여러 쇼환(小宦)을 불러 궐중(闕中) 각전(各殿)에 붓드러 가 자게 하라 하시니, 조국공(曹國公)은 문화각(文華閣)으로 가고, 송국공(宋國公)은 어도당(魚釣亭)으로 가고, 위국공(魏國公)은 구내(舊內)로 가니, 이 구내(舊內)는 황상(皇)이 오왕(吳王)으로 겨신 적에 처(處)하시던 침전(寢殿)이라.

서울대본²⁰⁾

18) 김광순본 467~468쪽.

19) 장서각본 권2, 27b면.

20) 서울대본 권2, 9b면~10a면.

위의 내용은 명태조가 여러 내시에게 명하여 술에 취한 공신들을 황궁의 여러 전각으로 보내 잠재우는 내용이다. 김광순본은 조국공, 송국공, 영국공, 신국공, 마지막으로 위국공 총 다섯 명이 어디에서 취침하는지 자세히 서술하였다. 사실 앞뒤 내용에 따라 명태조가 공신을 시험할 때 주로 서달의 충성심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서달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연회를 베풀고 실제로 여러 공신을 함께 모았다.

김광순본은 공신들의 상황을 일일이 서술하여 서사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더해주었다. 그러나 김광순본과 달리,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서사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신 두 명에 대한 서술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특별히 서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나열된 정보에 대한 탈문과 비슷하게, 중복된 서술에 대한 탈문도 흔히 보인다. 다음의 인용문으로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뉴선성(劉先生)이 군공(群公)을 니별(離別)하고 가더니 길히셔 이즈(二子)드려 일오되,

“니 다시 위국공(魏國公)을 보지 못하니 나문 흐니(恨이) 겁도다.”

김광순본²¹⁾

뉴선성(劉先生)이 위국공(魏國公)을 보디 못하니 나문 흐(恨)이 겁도다.

장서각본²²⁾

뉴선성(劉先生)이 위국공(魏國公) 셔달(徐達)를[을] 보디 못하니 나문 흐(恨)이 겁도다.

서울대본²³⁾

21) 김광순본 483쪽.

22) 장서각본 권2, 37b면.

위의 내용은 유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러 공신이 나와 그를 송별하지만, 서달은 이때 정벌하러 변방에 가야 했기 때문에 유기를 송별하지 못하는 장면의 일부이다. 김광순본은 유기가 공신들에게 인사를 나눈 후에 길에서 두 아들에게 서달을 만나지 못하여 매우 아쉽다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왔다.

실은 위에서 계속 전송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까닭에 굳이 다시 군신들과 작별한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맥에 따라 이 부분의 서사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유기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묘사를 전부 생략하고 단지 유기가 말하는 내용을 서술하여 유기가 서달을 못 만나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자구 출입을 통해 김광순본의 내용을 수시로 생략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장서각본 제2권의 내용은 세 이본이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본 간의 대교를 통해 서울대본에서는 이 부분의 탈문을 밝힐 수 있다. 다음은 김광순본과 장서각본은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대본만 누락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우상(右相) 왕광양(汪廣洋)을 크게 아쳐(訶)야 형부상서(刑部尙書) 기데(開濟)로 하야곰 왕광양(汪廣洋)은 간음(姦淫)호고 덩스(政事) 티만(怠慢)호물 고(告)흔디 태좌(太祖) 왕광양(汪廣洋)을 내쳐 관광(廣)동참정(廣東參政)을 호여 보너더니 길히셔 또 목 잘나 죽어니 이후(以後)는 중의(衆意) 더권(大權)이 다 호유용(胡惟庸)의게 도라가고 사롬이 다 발을 적어 드되고 눈을 흘기쓰며 감(敢)히 그 허물을 이르 리 업더라.

호유용(胡惟庸)이 전일(前日) 덕경후(德慶侯) 노영충(廖永忠)이 일즉 성의백(誠意伯)을 힘써 구(救)하니 미양(每樣) 절티(切齒)호여 등독(中

23) 서울대본 권2, 17a면.

毒)[+ ㅎ]고져 ㅎ야 제 복심(腹心) 시랑(侍郎) 개제(開濟)을[를] 추증[탁승]
(擢昇) ㅎ여 형부상서(刑部尙書)을[를] ㅎ인대 개제(開濟) 스 ㄴ 로이 가보고
치사(致謝) ㅎ대 유용(惟庸) 왈(曰),

“황상(皇上)이 그더 통임(寵任) ㅎ는 뜻을 아나나?”

기제(開濟) 스비왈(四拜曰),

“쇼데(小弟) 본(本)디 촌공(寸功)도 업시 황상(皇上)의 브리지 아니심과
상국의[-의]야”(相國爺爺)의 난혹[육](卵育) ㅎ신 은혜(恩惠)를 입엇더니
금일(今日) 승탁지던(昇擢之典)은 실(實)노 의외(意外)니 년고(緣故)를 아
지 못홀소이다.”

유용(惟庸) 왈(曰),

“황상(皇上)이 춘취(春秋) |) 눉호시고 태지(太子) |) 유약(柔弱) ㅎ신디
모든 공신(功臣)이 심(甚)히 강성(強盛) ㅎ야 불법지시(不法之事) |) 만호니,
후일지화(後日之禍)을[를] 겁히 넘네[려](念慮) ㅎ사 날로 ㅎ야곰 훈신(勳臣)
등(等)을 규출(糾察) ㅎ는 소님[임](所任)을 그디의 못지라.”

김광순본²⁴⁾

우승상(右丞相) 왕광양(汪廣洋)이 양헌(楊憲)을 극형(極刑) ㅎ믈 간(諫) ㅎ
엇더니 호유용(胡惟庸)이 또 왕광양(汪廣洋)을 크게 아쳐 ㅎ여 형부시랑(刑
部侍郎) 기제(開濟)로 ㅎ여곰 왕광양(汪廣洋)의 간유[음](姦淫) ㅎ고 덩스
(政事)의 티만(怠慢) ㅎ믈 고(告) ㅎ디 태조(太祖) |) 광양(廣洋)을 내쳐 광동
참정(廣東參政)을 ㅎ이여 보니엇더니 또 이욱고 죽이니, 이후(以後)는 중의
(衆意) 더권(大權)이 다 유용(惟庸)의게로 도라가고 발을 저기 드디고 눈을
흘니써 감(敢)히 그 허믈을 니르 리 업는디라.

호유용(胡惟庸)이 또 전일(前日) 덕경후(德慶侯) 노영통(廖永忠)이 일
죽 뉴선싱(劉先生)을 힘베 진구(振救) ㅎ던 일을 미양(每樣) 절티(切齒) ㅎ
야 등독(中毒) ㅎ고져 ㅎ더니 제 심복(心腹) 시랑(侍郎) 기제(開濟)를 토
[탁승(擢昇) ㅎ야 형부상서(刑部尙書)를 ㅎ인대 기제(開濟) 스스로이 가보

24) 김광순본 456~458쪽.

고 티샤(致謝)현대 유용(惟庸) 왈(曰),

“황상(皇上)이 그디 통임(寵任)하는 뜻을 아는다.”

기제(開濟) 왈(曰),

“쇼덕[데](小弟) 본(本)디 촌공(寸功)이 업시 성세(盛世)에 통덕(通籍)하야 황상(皇上)의 브리디 아니 하심과 상국야야(相國爺爺)의 난혹[육](卵育) 하신 은혜(恩惠)를 넘어더니 금일(今日) 승탁지던(昇擢之典)은 실(實)노 념의[외](念外)니 아모 연권(緣故) 줄 아디 못하느이다.”

유용(惟庸) 왈(曰),

“황상(皇上)이 춘취(春秋) |) 놓프시고 태지(太子) |) 더리 유약(柔弱)하디 모든 공신(功臣)이 심(甚)히 강(強)하야 불법지시(不法之事) |) 만흐니, 후일지해(後日之害)를 겁히 념녀[려](念慮)하샤 날로 하여곰 훈신(勳臣) 등(等)을 규찰(糾察)하는 소임(所任)을 그디과 맞디라 하신다.”

장서각본²⁵⁾

우승상(右丞相) 양왕광양(汪廣洋)이 양헌(楊憲)을 불법지시(不法之事) |) 만흐니, 후일지해(後日之害)를 겁히 념녀(念慮)하샤 날로 하여곰 훈신(勳臣) 등(等)을 규찰(糾察)하는 소임(所任)을 맞기노라 하신다.

서울대본²⁶⁾

위의 밑줄 친 내용은 서울대본에서 대폭 누락한 탈문 부분이다.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 서울대본이 내용을 대폭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의 선후 관계도 밝힐 수 있다. 우선 서울대본의 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락한 부분에는 긴 서사 내용과 함께 여러 등장인물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많은 내용을 누락하면 앞뒤 문장이 서로 맞지 않고 문맥상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 장서각본 권2, 20a면~21a면.

26) 서울대본 권2, 5a면~5b면.

필사자가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실수로 인하여 생긴 탈문 문제로 본다.

그리고 이 내용 부분에 있어 서사상의 탈문은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제공해 주었다.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전체적으로 김광순본의 내용을 포함하는 면에 있어서도 탈문 현상이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이본이 김광순본보다 후대의 이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자구의 출입으로 결코 두 이본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대본에서 이런 탈문 부분이 밝혀지고 장서각본이 비교적으로 완전하게 필사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장서각본이 서울대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부정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대본의 탈문으로 장서각본이 이 계열의 선행 이본임을 확인하였다.

서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교법(對校法)을 통해 삼입시의 내용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 위국공(衛國公) 등유(鄧愈)의 시를 살펴 보겠다.

선싱지니국유신(先生之來國有臣)
 선싱(先生)이 오미 나라히 신흔(臣下) 잇더니
 선싱지거도무인(先生之去朝無人)이로다
 선싱(先生)이 가미 도정(朝廷)에 사름이 업도다

김광순본²⁷⁾

선싱지니국유신(先生之來國有信)
 선싱(先生)이 오래 나라히 밋브미 잇더니
 선싱지개[게]도무인(先生之去朝無人)

27) 김광순본 481쪽.

선싱(先生)이 가매 도당(朝廷)의 사름이 업도다

장서각본²⁸⁾

선싱지리국유신(先生之來國有信)

선싱(先生)이 오매 나라히 밋브미 잇더니

선싱지거도무인(先生之去朝無人)

선싱(先生)이 가매 도당(朝廷)의 사름이 업도다

서울대본²⁹⁾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모두 ‘밋브미’로 필사되어 있다. 즉 ‘선싱지리국 유신’이라는 시구 중의 ‘신’자를 ‘신하의 신(臣)’자가 아니라 ‘믿을 신(信)’자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시를 쓸 때 항상 운율과 수사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시구는 ‘선싱지거도무인’으로 하는데 즉, 유기가 조정에서 떠나면 조정에는 인제가 없을 것이다. 앞뒤 두 시구가 서로 대구를 이루어야 하는 특징을 고려할 때 ‘믿을 신(信)’자보다 ‘신하의 신(臣)’자가 더 적당하다. 대교법(對校法)을 통해 김광순본이 장서각본과 서울대본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3. 본교법(本校法)으로 검토

다음에서 본교법(本校法)³⁰⁾으로 현존 이본의 오자(誤字)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2회에서 등장하는 ‘정세정(丁世貞)’이라는 인물을 주의해야 한다.

28) 장서각본 권2, 36a면.

29) 서울대본 권1, 24a면~24b면.

30) 본교법(本校法)은 같은 책의 앞뒤 내용을 서로 대조하면서 교정(校正)하는 방법이다. 전현(錢玄)(2019), 앞의 책, 147쪽.

던창(陳倉) 수장(守將) 덩세딘(丁世珍)이 벼야호로 좁을 씨디 못흐얏더니
홀연(忽然) 스면(四面)의 고함(高喊) 소리 산학(山壑)이 믄허디는 듯흐거늘 세
딘(世珍)이 대경(大驚) 흐야 니라.

서울대본³¹⁾

덩세령[녕](丁世貞) 등(等) 십여(十餘) 인(人)을 버혀소 동침(同僉) 당달
(蔣達) 등(等) 팔십여(八十餘) 인(人)을 사르잡고 머리 천여(千輿) 급(級)을
버히니, 물의 빠자 죽으 니는 이기에 헤디 못흐리러라.

서울대본³²⁾

위의 인용문은 각기 부우덕이 진창을 공격하는 장면과 요영충이 구당관을 공파하고 수많은 장수를 죽이는 장면이다. 서사 내용에 따라 두 장면에서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앞에서 ‘정세진(丁世珍)’으로 표기되고, 뒤에서 또 ‘정세정(丁世貞)’으로 필사되었다. 정세정은 역사상 실존 인물로 관련된 역사 문헌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세정’과 ‘정세진’의 중국어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대명영렬전』에서 ‘정세정’을 ‘정세진’으로 오기하였다. 『남계연담』도 똑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였다. 그러나 한글로 표시할 때 두 이름의 발음은 결코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남계연담』에서 정세정을 여러 번 언급하지만 때로는 정확한 이름인 ‘정세정’으로 서술하고, 때로는 틀린 이름인 ‘정세진’으로 서술하였다.

이런 현상으로 보면, 『남계연담』의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했을 때 확실히 정세정의 이름을 오기한 『대명영렬전』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향대형(向大亨)’의 이름을 ‘하대형(何大亨)’으로 잘못 표시하는 예도 들 수 있다. 이는 역시 한문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31) 서울대본 권1, 24a면~24b면.

32) 서울대본 권1, 29a면~29b면.

오자이다. 굳이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본교법(本校法)으로 이런 오자 문제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

4. 타교법(他校法)으로 검토

필자의 비교를 통해 작가가 『남계연담』을 창작할 때 다양한 중국 자료를 참고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여 번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남계연담』을 교감할 때는 타교법(他校法)³³⁾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료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황명조훈(皇明祖訓)』을 비롯한 국가 정부에서 편찬한 자료이고, 둘째, 『대명영렬전』을 비롯한 중국 고전소설이며, 셋째,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야사나 설화 같은 자료들이다. 다음에 이상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남계연담』과 『황명조훈』의 내용을 비교해 보겠다.

등서성[성](中書省)을 혁(革)하야 좌우승상(左右丞相)을 업시하고 육부상서(六部尙書)를 올녀 정일품(正一品)을 삼아 텃하셔무(天下庶務)를 논화 다스리게 혼대 위국공(魏國公) 셔달(徐達)이 대도독부(大都督府)를 파(罷)하야 지라 하니 드대여 대도독(大都督)을 혁(革)하야 좌우전후등(左右前後中)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를 논화 두어 병권(兵權)을 분(分)하야 편퉁[중](偏重)티 아니케 하시고 <황명조훈(皇明祖訓)>에 이 말을 올녀 곶오대,

‘즈고(自古)로 삼공(三公)이 도(道)를 의논(議論)하며 육경(六卿)이 소임(所任)을 맞트대 일즉 승상부(丞相府)를 설납(設立)디 아녓더니 비록 그 친[진](秦) 척[적]브터 승상(丞相)을 두니, 발뒤축을 두로혀지 아녀 망(亡)호고 한

33) 타교법(他校法)은 교감 대상과 관련 있는 책을 가지고 교감 대상과 서로 대조하면서 교정(校正)하는 방법이다. 주로 교감 대상이 다른 책을 인용하거나 다른 책과 비슷한 내용을 수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교감 방법이다. 전현(錢玄)(2019), 앞의 책, 149쪽.

진당송(漢晉唐宋)이 서로 전(傳)히며 비록 어진 정승(政丞)이 혹(或) 잇시나 쇼인(小人)이 만하 권(權)을 천즈(擅恣)히며 정스(政事)를 어즈러혀 화(禍)를 브르며 나라를 업티는디라. 이제 이궤(我朝 |) 승상(丞相)을 파(罷)하고 오부(五府)와 도찰원(都察院)과 통정스(通政司)와 대리시(大理寺) 등(等) 아문(衙門)을 설납(設立)히야 텃하셔무(天下庶務)를 논화 다스려 피츠(彼此) 형세(形勢) 힐항(頡頏)히야 서로 업누르미 업게 흐노니 다 조정(朝廷)의 총제(總制)히미 맞당흔디라. 훗즈손(後子孫)이 승상부(丞相府)를 세우지 말고 문무군신(文武群臣) 등(中)의 다시 설납(設立)히야지라 할 지(者 |) 이시면 즉시(卽時) 범죄인(犯罪人)을 잡아 전개(全家 |) 능디쳐스(凌遲處死)히게 하라.’
서울대본³⁴⁾

‘옛날로부터 삼공이 도리를 의논하며 육경이 소임을 맡았는데 본래 승상부를 설립하지 않았다. 진(秦)나라 때부터 승상을 두기 시작하나 발꿈치를 돌리지 않아 망하였다. 한(漢)나라, 당(唐)나라, 송(宋)나라가 그 승상 제도를 계승하며 비록 어진 정승이 혹 있으나 그 중에서 소인이 많아 권력을 홀로 잡으며 정사를 교란시켰다. 이제 우리 나라가 승상을 없애고 오부, 육부, 도찰원, 통정사 그리고 대리시 등의 아문을 세워, 천하의 서무를 나누어 다스려 서로의 권력을 제어하여 감히 서로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니, 모두 조정이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리에 맞다. 후대 자손이 황제가 되면 승상을 설립하지 말라. 신하 중에서 감히 설립을 제의하는 자가 있으면 문무백관이 즉시 상서하여 그 범인을 능지처참하고 온 집안을 멸살하라.’³⁵⁾

『황명조훈(皇明祖訓)』 「조훈수장(祖訓首章)」

34) 서울대본 권3, 4b면~5b면.

35) 自古三公論道，六卿分職，並不曾設立丞相。自秦始置丞相，不旋踵而亡。漢，唐，宋因之，雖有賢相，然其間所用者多有小人，專權亂政。今我朝罷丞相，設五府，六部，都察院，通政司，大理寺等衙門，分理天下庶務，彼此頡頏，不敢相壓，事皆朝廷總之，所以穩當。以後子孫做皇帝時，並不許立丞相。臣下敢有奏請設立者，文武群臣卽時劾奏，將犯人凌遲，全家處死。

위의 내용은 제3회 끝에 명태조가 중서성을 개혁하고 좌우승상을 없애는 내용이다. 작가는 명태조의 개혁을 서술할 때 이 부분의 내용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의 출처와 함께 그 원문을 그대로 제시해 주었다. 작품 속에 실린 『황명조훈』과 중국 현전 『황명조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무런 차이점도 없고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번역의 오류와 원문에 대해 직역하는 구절로 이런 특징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진(秦)나라 때부터 승상을 두기 시작하나 발꿈치를 돌리지 않아 망하였다’라는 말은 진나라가 처음으로 승상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망했다는 뜻이다. 『남계연담』은 이 문장을 ‘비록 그 친[진](秦) 척[적]부터 승상(丞相)을 두니 발뒤축을 두로혀지 아녀 망(亡)호고’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나라 때부터’라는 말을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모두 ‘친척’으로 오기한 것이다. 이런 착오로 인하여 ‘진나라부터 승상을 둔다’는 말은 ‘친척을 임용하여 승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왜곡되었다. 사실 한문본의 ‘진나라’를 뜻하는 ‘진’자를 봤다면 ‘친척’의 의미로 착각할 리가 없는데 아마도 한글본의 ‘진 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친척’으로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오기로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을 필사했을 때 사용한 저본이 한문본이 아니라 한글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선종이망(不旋踵而亡)’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발뒤축을 두로혀지 아녀 망(亡)호고’라고 번역하였다. ‘선종’은 ‘발꿈치를 돌리다’는 의미로 짧은 시간을 비유하는 것이다. ‘불선종’은 곧 ‘발꿈치를 돌릴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라는 뜻으로 진나라가 망하는 속도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남계연담』은 이 표현을 풀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번역한 까닭에 한문본을 번역한다는 징표를 남겨두었다. 한편 뒤에서 오부(五府)와 육부(六部) 등 관아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서술할 때 비록 육부를 빠뜨리나 앞뒤 구절을 참고하면 『황명조훈』을 번역했을 때 실수로 누락했다

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어서 『대명영렬전』에 대한 수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남계연담』이 『황명조훈』을 수용하는 동시에 그 출처도 밝힌 것과 달리, 『대명영렬전』을 수용할 때 그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명영렬전』과 비교하면 『남계연담』의 많은 내용이 『대명영렬전』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번안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대명영렬전』이 창작된 후에 여러 이본으로 널리 유통되는 와중에 『남계연담』이 도대체 어느 이본을 수용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의 예로 『대명영렬전』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경우를 알아보겠다.

태조(太祖 |) 봉천殿(奉天殿)의 어좌(御座) 하시니 태자(太子) 친왕(親王)이 되셔 안고, 승상(丞相)이 백관(百官)을 거느려 단디(丹墀) 좌우(左右)에 버러섯더니, 상(上)이 제장(諸將)드려 던유(傳諭) 하야 곶으사디,

“너희 등(等)이 다 님(朕)의 말을 드르라. 오늘날 공(功)으로 덩(定)하고 작상(爵賞)을 행(行)하든 하든 사람의 사(私)사(私事 |) 아니라, 옛 선왕(先王)의 범(範)을 의방(依倂)함이라. 님(朕)이 이 일을 생각하든 디 여러 히 되여시되, 다만 정벌(征伐)이 굿치디 아니하고 생녕(生靈)이 쉬이디 못하매 이런 일을 곁을 치 못하얏더니 오늘날 작상(爵賞) 차례(次例)는 다 님(朕)의 손조 덩(定)하든 배 아니니 지공무사(至公無私) 하디라. 좌승상(左丞相) 니선당(李善長)은 비록 한마(汗馬)의 공(功)이 업스나 님(朕)을 섬견 디 7장 오라고, 군량(軍糧)을 준비(準備)하야 꺾절(乏絶)하든 때 업시 하니, 한고조(漢高祖)의 쇼하(蕭何)로 더브러 다르미 업고, 우승상(右丞相) 서달(徐達)은 기병(起兵) 시(時)로버터 백전백승(百戰百勝)하야 공(功)이 한평(韓彭)에 디나니, 맛당히 큰 나라를 봉(封)하야 뼈 국가표상(國家表章之典)을 뵈 거시오 그 나무 니는 다 공(功)을 초차 ‘상(賞)을 힘쓰게 하라’ 하여는디라. 만일(萬一) 작상(爵賞)이 맛굿디 아니 리 잇거든 경(卿) 등(等)이 맛당이 덩(廷)하야 니르고, 물너가 훗(後)말이 업게 하라.”

서울대본³⁶⁾

태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봉천전에 들어왔다. 황태자와 여러 왕들과 문무 백관이 조건하는 예를 마치고 섬돌의 양쪽에 늘어섰다. 명태조가 말씀하기를, “오늘 차등을 결정하고 상을 내리는 것은 사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옛 정형을 모방하는 것일세. 이전에 정벌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미치고 있네. 예컨대 좌승상 이선장은 비록 전장에서 전공을 세우지 않으나 군량을 공급하는 데 공필함이 없었네. 우승상 서달은 짐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부터 따라서 정벌하여 강한 적국을 공파하고 순한 백성을 위로하고 공격이 가장 많았구나. 이 두 사람이 공적이 되며 표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대국으로 봉해야 한지라. 나머지 모두 공에 따라 봉할 것일세. 『상서』에서 이르기를 “덕이 높은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 상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만약 벼슬이 덕에 걸맞지 않거나 상이 공적에 어울리지 않으면 경들이 조정에서 당장 의논해야 할 것이며, 돌아가서는 이야기하지 말라.”³⁷⁾

『대명영렬전(大明英烈傳)』 제74회³⁸⁾

이상의 내용은 거의 『대명영렬전』을 그대로 번역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역과 직역을 통하여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명태조가 이선장을 평가할 때 그를 ‘비록 한마(汗馬)의 공(功)이 업스나’라고 말하지만, 한글본만 볼 때는 ‘한마의 공’이라는 표현 중의 ‘한마’의 의미가 약간 애매한 것 같다. 그러나 한문본을 대조하면 바로 ‘줄곧 달려 등에 땀이 뻘 말’, 혹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을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말은

36) 서울대본 권3, 1b면~2a면.

37) 太祖夙興，御奉天殿。皇太子及諸王，文武百官，朝見禮畢，排列在丹墀左右。太祖說：“今日定行封賞，非出一己之私，皆仿古來之典。向以征討未逞，故延至今日。如左丞相李善長，雖無汗馬之勞，然供給軍糧，更無缺乏。右丞相徐達，朕起兵時，即從征討，摧堅撫順，勞動最多，二人進列公爵，宜封大國，以示褒嘉，餘悉照功加封。『書經』上說：德懋懋官，功懋懋賞。今日若爵不稱德，賞不酬功，卿等宜廷論之，毋得退後有言。”

38) 조경심(趙景深)·두호명(杜浩銘), 『영렬전(英烈傳)』,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1981, 288쪽.

전쟁할 때 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쟁터에서 빨리 뛰는 말의 공로’는 곧 전공을 뜻하는 것이다. ‘비록 전공이 없으나’라는 말을 그대로 ‘한마의 공이 없으나’로 번역하여 한문본의 존재를 암시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본을 보면, 『대명영렬전』과 확연히 다른 문장도 있다. 바로 ‘공(功)을 조차 상(賞)을 힘쓰게 하라’라는 것이다. 사실 이 문장의 원문은 ‘덕무무관(德懋懋官), 공무무상(功懋懋賞)’이라는 것이고, 『상서(尙書)』 「중휼지고(仲虺之誥)」에서 나온 말이다. 즉, 덕이 높은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이 여러 구절을 누락하여 ‘공(功)을 조차 상(賞)을 힘쓰게 하라 하여는디라’로 줄이지만, 김광순본을 참고하면 원래는 ‘공(功)을 조차 행(行)홀 거시니 성인(聖人)니 일오디, 덕(德)을 힘쓰거든 상(賞)을 힘쓰게 하라’라고 번역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김광순본도 누락이 있으나 『대명영렬전』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대명영렬전』과 다른 문장도 실은 단지 원래의 일부를 누락하여 된 것이다.

또한 ‘경등의정론지(卿等宜廷論之)’라는 말에 대한 직역으로 『남계연담』의 『대명영렬전』에 대한 수용 양상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남계연담』의 번역을 보면 ‘경(卿) 등(等)이 맞당이 덩(廷)하야 니르고’ 중의 ‘정하야’라는 표현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정하다’라는 동사를 볼 때 보통 ‘정(定)하다’나 ‘정(呈)하다’ 같은 어휘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조정(朝廷)’의 ‘정(廷)’자로 ‘조정에서’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한문본 중의 ‘정론’은 두 글자를 따로 해석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봐야 한다. 번역자가 실수로 이 단어를 나누어 번역하여 역시 번역의 증거를 남겨주었다.

더불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아사나 설화 같은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도 타교법으로 살펴보겠다.

태조(太祖) | 차례(次例)로 던작(奠爵) 하시고 시신(侍臣)을 명(命) 하야 제문(祭文)을 차례(次例)로 낚히실시.

원세조(元世祖)의 다드르 금상(金像)에 눈물이 비 오듯 흐거늘 태조(太祖) | 날으사디,

“그디 만이(蠻夷)에 종뉴(種類)로 뼈 던하(天下)를 혼일(混一) 하니, 그 신무(神武)를 차[찬탄(贊嘆) 하야 금일(今日)에 녀디(歷代) 성군(聖君)과 험가지로 봉안(奉安) 하니, 엇디 그 감격(感激) 혼 줄을 모르뇨? 즈고(自古)로 던하(天下)는 일인(一人)의 던하(天下) 아니라 던하(天下) 사람의 던하(天下)라. 기수(氣數)를 좃차 흥(興) 하며 망(亡) 하며 쇼연(昭然) 하니, 송(宋)의 기수(氣數) | 진(盡) 하며 그디 이덕(夷狄) 뜻글로 빅년(百年) 천명(天命)을 바드니, 그 분(分)의 과(過) 흐거늘 이제 눈물을 흘려 사람의 고[괴이(怪異) 히 너기물 더으니, 진실(眞實)로 이덕(夷狄)에 족(足) 혼 줄을 모로미로다.”

흐신디 말을 못츠매 눈물을 즉시(卽時) 거두니라.

서울대본³⁹⁾

우리 나라 태조가 천하를 얻어서 역대 제왕을 제사하기 위하여 묘를 설립하였다. 복희씨부터 그 후의 황제의 금상을 모두 쉽게 만들 수 있었으나 오직 원세조의 금상 얼굴만이 항상 눈물 자국으로 더럽혀졌다. 조상을 만드는 장인이 자주 수리하지만, 하루가 멀다고 또 다시 전과 같이 더럽혀졌다. 태조가 이 일을 듣고 묘에 들어왔다. 원세조의 금상을 가르키면서 꾸중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오랑캐야, 너와 같은 오랑캐가 중국을 통치하다니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금상을 만들 때 황제 중에서 너를 빼버리지 않는 것은 너도 한 시대의 황제였기 때문이라. 짐은 이제 천명을 받아 인심을 얻게 되고 문득 천하를 가지게 되어 너의 자손을 살육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가게 하기만 하니, 이는 내가 너희 망국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네. 네가 무슨 한이 있느냐? 그만 울어라.” 그랬더니 장인이 이튿날 원세조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없어졌다고 아뢰었다.⁴⁰⁾

『칠수류고(七修類稿)』 권7 「세조상루(世祖像淚)」

39) 서울대본 권2, 3b면~4a면.

위의 인용문은 명태조가 역대 제왕에게 제사했을 때 원세조의 금상이 눈물을 흘린다는 서사 내용이다. 금상에서 눈물이 나는 일은 극히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남계연담』의 작가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널리 전해지는 설화로 많은 필기 소설에서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참고로 『칠수류고(七修類稿)』의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칠수류고』도 이 설화를 수록하는 여러 책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남계연담』 안에 이런 중국 설화도 다수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출처를 일일이 밝히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계연담』 중의 이상과 같은 내용은 중국의 『칠수류고』와 비슷한 유형의 자료를 참고하여 창작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남계연담』이 매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창작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서 검토한 『남계연담』의 참고 자료의 상황을 보면 『남계연담』의 창작 방식을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서사면의 착종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답도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의 작가는 중국 명나라 건국 초기 명태조가 천하를 다스리는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대명영렬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국 자료를 광범위하게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번안과 번역하는 방식으로 『남계연담』이라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작가가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여러 자료를 서로 어울리게 편집하였으나 수많은 자료가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된 내용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남계연담』 서사 면의 착종 현상도 생겼다.

이상과 같이, 타교법을 충분히 활용해야 작품을 창작한 방식과 정확한

40) 我太祖既有天下，建廟以祀歷代帝王，自伏羲以下，像皆易成，惟元世祖其面屢爲淚痕所汗，塑工頻加修飾，越宿則又如故也。太祖聞知，幸廟，以手指曰：“癡達子，汝胡人入主中國，可謂幸矣，今不革去者，以爾亦一代之主，朕今天命人歸，奄有天下，於汝子孫，不加殺戮，但驅還北，則朕之待勝國，亦可謂有恩矣，汝何恨耶？毋再啼哭。”於是塑工明日遂奏，世祖面無淚矣。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5. 이교법(理校法)으로 검토

마지막으로 이교법(理校法)⁴¹⁾으로 삽입시의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삼척도스부데업(三尺鈞絲扶帝業)
 석자 낙시줄로 님군(君)에 업(業)을 붓들고
 일간모옥와청던(一間茅屋臥靑田)
 청던(靑田) 흔 간(間) 모옥(茅屋)에 누엇도다
 당당대당부여츠(堂堂大丈夫如此)
 당”(堂堂)흔 대당뷔(丈夫) | 이러툃 흘지니
 스업정퉁일월현(事業精忠日月見)
 스업(事業)과 정퉁(精忠)이 일월(日月)에 들렷도다

서울대본⁴²⁾

위의 삽입시의 세 번째 시구는 ‘당당대당부여츠(堂堂大丈夫如此)’라고 한다. 그러나 칠언절구(七言絶句)를 끊어 읽을 때 먼저 앞의 네 글자를 읽고 다음에 뒤의 세 글자를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시구처럼 ‘당당 대당 부 여츠’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당당 여츠 대당부’나 ‘여츠 당당 대당부’라고 써야 한다. 김광순본의 경우에 ‘당” 흔 여츠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한문 정형시의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물론 서울대본과 장서각본의 ‘당 당대당부여츠’도 틀린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교법(理校法)으로, 곧 시를

41) 이교법(理校法)은 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삼는 교감 방법이다. 이른바 충분한 이유는 보통 용례, 문자, 음운, 훈고(訓詁), 문법, 역사, 제도 등 면의 이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유가 충분할수록 교감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 전현(錢玄)(2019), 앞의 책, 157쪽.

42) 서울대본 권2, 15b면~16a면.

창작하는 규칙으로 교감하여 시구를 ‘당당여츠대당부(堂堂如此大丈夫)’로 수정해야 한다.

6. 결론

본고는 대교법(對校法), 본교법(本校法), 타교법(他校法), 이교법(理校法) 등 교감학 연구 방법으로 현존하는 『남계연담』의 모든 이본을 비교하여 오자(誤字), 연문(衍文), 탈문(脫文), 도치(倒置) 등 문제를 밝히면서 각 이본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작품 서사 면의 착종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남계연담』이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창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남계연담』은 창작 당시에 다양한 중국 자료를 참고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여 번역하였다. 이들 자료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황명조훈(皇明祖訓)』을 비롯한 국가 정부에서 편찬한 자료이다. 둘째, 『대명영렬전(大明英烈傳)』을 비롯한 중국 고전 소설이다. 셋째,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아사나 설화 같은 자료이다.

김광순본은 서사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더해 주었지만, 장서각본과 서울대본은 자구 출입을 통해 김광순본의 내용을 수시로 생략하였다. 이렇게 생략하더라도 내용의 서사 발전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내용의 완전성에 있어 김광순본보다 확실히 떨어진다. 아쉽게도 김광순본은 현재까지 두 권 밖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작품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비록 누락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대본은 현존 이본 중에서 유일하게 세 권이며 5회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용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이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문 자료

『남계연담(南溪謙談)』(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개인문고) 일석 819.5 N152yp).

『남계연담(南溪演談)』(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 K4-6788).

『남계연담(南溪聯譚)』(김광순, 『한국고소설전집』 42, 박이정, 1998, 1~572쪽).

2. 고전 전적

낭영(郎瑛), 『칠수류고(七修類稿)』.

주원장(朱元璋), 『황명조훈(皇明祖訓)』.

3. 논문 논저

민광동, 『중국고전소설의 전파와 수용 :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7, 1~434쪽.

양승민, 「『승정원일기』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59~289쪽.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241쪽.

전인초, 「유기행장과 『남계연담(南溪聯譚)』, 『남계연담(南溪演談)』,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21~341쪽.

전현(錢玄), 『교감학(校勘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2019, 1~239쪽.

정병설, 「24. 남계연담」, 『장서각 고소설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1~636쪽.

정천범(程千帆)·서유부(徐有富), 『교수광의(校讎廣義): 교감편(校勘編)』, 제노서사(齊魯書社), 1998, 1~436쪽.

조경심(趙景深)·두호명(杜浩銘), 『영렬전(英烈傳)』,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1981, 1~320쪽.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1~908쪽.

홍현성, 「〈남계연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학』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7~35쪽.

황영년(黃永年), 『고적정리개론(古籍整理概論)』, 상해서점출판사(上海書店出版社), 2001, 1~179쪽.

ABSTRACT

A Study on the Extant Editions of the *Namgyeyeondam*

Yang Pan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all extant editions of the *Namgyeyeondam*, including the Kim Gwang-sun Edition(KGSE), the Jangseogak Edition(JSGE),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ion (SNUE),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textual criticism. This study employed four research methods, namely, criticism by comparison of different editions, criticism by comparison of different paragraphs within the same edition, criticism by comparison of different books that share similar content, and criticism through analysis of the truth. The *Namgyeyeondam* was written with reference to various Chinese materials. These materials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materials compiled by the Ming or Qing Dynasty government; second, Chinese classical novels; and third, that which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exact source, such as, folk tales and unofficial histories. The KGSE edition of the *Namgyeyeondam* provides more details to the story, making it more interesting to readers in comparison to the JSGE and the SNUE editions, which simplify details through omission of some words. Although these simplifications do not necessarily hinder the comprehension of the main narrative, the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completeness of the story. Unfortunately, a third of the KGSE edition of the story is missing, so despite its positives, it cannot portray the complete story of the *Namgyeyeondam*. Hence, although the SNUE edition may be lacking in some details, among the extant editions it is the only one that has the full content of three books and five episodes. Thus, it possesses significant value among all extant editions.

Key Words

Namgyeyeondam, Extant Editions, Daming yingliezhuan,
Zhu yuanzhang, Jangseogak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